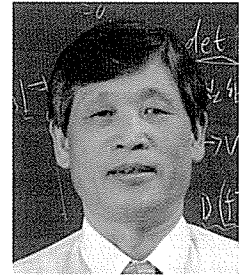


數學전문연구소 설립 시급하다

국가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기초과학이 튼튼해야 하고 기초과학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수학의 발전이 있어야 한다. 2000년에는 우리나라 대전에서 국제수학올림피아드가 개최되는데 국민소득 만달러가 넘는 우리나라에 아직도 정부출연 수학전문연구소가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정치권은 물론 정부·재계에서 수학연구소 설립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朱 鎮 球

(충남대 자연과학대 수학과교수)

나는 가끔 텔레비전을 즐겨 시청한다. 시사뉴스, 연속극, 과학,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본다. 나는 운동에는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지만 박찬호선수가 LA다저스팀의 선발투수가 되면서부터 박선수가 승리투수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또 다저스팀이 이기면 기분이 좋아진다. 운동을 모르는 내가 이렇진대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관심과 재미는 얼마나 대단할 것인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야구에 적으나마 관심을 가지다 보니 선수들의 연봉에 대하여 조금은 알게 되었다. 인기있는 선수일 경우, 연봉은 계약금을 포함하여 수억원이 된다. 젊은 선수들이 땀흘려 노력해서 실력을 향상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재미와 흥미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에 활력을 더해주는 것은 좋은 일이다. 국가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기초과학의 중요성이 정치권은 물론, 정부와 재계, 언론계에서 논의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그러나 수없이 논의는 되면서도 기초과학분야에 종사하는 학자나 연구원에 대한 대우는 운동선수

비하여 참으로 보잘 것이 없다. 평생을 통하여 교육, 연구와 실험을 계속해도 운동선수의 연봉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기초과학 육성에 총력을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위하여 전용 축구장 하나 건설하는데 투자되는 금액이 몇 천억원이라지만 아무도 이를 제기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신나기만 한 것 같다. 그런데 기초과학을 위한 연구소의 설립이나 첨단시설과 실험기기의 도입에 투자되는 금액은 축구장 건설의 몇십 분의 일도 안되고 연구원의 연봉이 얼마나 되는 지에 대하여는 사회에서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 기초과학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기초과학의 토대가 되는 수학의 경우에는 전국을 통틀어 단 하나의 정부출연연구소도 없다. 수학은 기초과학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가장 기초적인 학문이다. 그러기에 기초과학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수학의 발전이 있어야 한다. 또한 과학의 발전과 신기술의 개발을 위해서는 기초과학이 튼튼한 토대를 이루지 않으면 안된다

것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30여년동안 생산과 응용기술부문에서는 세계의 선진국과도 어깨를 겨룰 만큼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속빈 강정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자체의 신기술 개발이 뒷받침되지 못하므로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며,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닌 생산기술, 응용기술의 많은 부분이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집을 짓더라도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고 모양새만 좋은 건물을 짓는 것과 비슷하다. 아무리 편리하고 겉모양이 좋은 건물이라도 기초가 단단하지 못하면 건물의 안전도가 불안하며 수명은 예측할 수 없이 짧아질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정조는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구성과 함께 무역 자유화가 현실화되면서 지적재산권문제는 이제 국가 경쟁력이나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기초과학이나 응용과학, 신기술 개발 등의 지적재산권은 막대한 투자가